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가족건강보험료 큰 폭 증가 지속

-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 5% 증가한 1만 3,37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지난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됨.
 - 가족건강보험 평균보험료는 1999년 5,791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까지 무려 131%증가했으며 이는 동기간 근로자 소득 증가율 38%, 물가상승률 28%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임.
 - 카이저 패밀리 재단(Kaiser Family Foundation)등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험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와 고용주의 보험가입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.
-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21%가 이번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혜택을 줄이거나 근로자 비용부담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고, 15%의 기업은 월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남.
 -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비용절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은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되며 결과적으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보험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혜택은 줄고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 있음.
 - 카이저 패밀리 재단 관계자는 불황국면에서 물가보다 빠른 보건비용(Health care cost)의 상승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.
 - 평균 가족 건강보험료 1만 3,375달러 중 고용주는 9,860달러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26%에 해당하는 3,515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부담률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.
- 현재 미국에서는 1억 5,900명 가량이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비중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 - 근로자수가 200명 미만인 기업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 비중은 2008년 62%에서 2009년 59%로 감소했으며, 근로자수가 10~24명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78%에서 72%로 감소함.

(McClatchy Newspaper, 9/15)